## 짧지만 경쾌한 단막극 묘미
## 11편 무대 위 상연을 꿈꾸며

### 희곡집 '마성'

강준 지음

평민사

소설과 희곡을 오가며 창작 작업을 이어 오고 있는 제주 강준(본명 강용준) 작가. 그가 "짧지만 명쾌한 단막극의 묘미"를 느낄 수 있는 작품들로 아홉 번째 희곡집을 냈다.

강 작가는 희곡 작가가 드문 문단 현실에서 꾸준히 작품을 발표해 왔다. 이번엔 '마성(馬星)'이란 제목을 달고 11편을 묶었다. 첫 희곡집 '방울소리'(1991) 이래 그동안 출간한 창작집에 실렸던 작품도 일부 포함됐다.

열악한 지역 연극계 현실을 고려해 등장인물이 적고 1시간 안에 공연할 수 있는 작품을 위주로 엮었다. 등장인물이 많으면 연출 의도에 따라 일인 다역으로 올릴 수 있도록 했다.

표제작은 제주 역사 속 인물인 헌마공신 김만일의 일대기를 소재로 쓴 2인극이다. '온주, 에밀타케'는 타케 신부와 온주 밀감 도입을 다룬 2인 '스마트 연극'용으로 집필했다. '거슨새미'는 제주 거슨새미 설화를 현대화했다.

세태를 반영한 희곡도 있다. 섬에서 일어난 강아지 실종 사건을 그린 '태풍 무이파', 선거에 나선 주인공을 둘러싼 에피소드가 펼쳐지는 '나순량 후보', 공안 정권 시절 시위에 참가한 학생과 그 시기의 현실을 담은 '안개주의보' 등이다.

강 작가는 "이 희곡집이 생활 속에서 활용되어 연극 활동이 다양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했다. 진선희기자

이 책

# "소통 애쓰지 말고 때론 침묵하는 힘을"

##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

정희진 지음

창비

"내가 너무 예민한가?" "왜 나는 항상 억울한 생각이 들까?" "나는 왜 조리 있게 말하지 못할까?"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자녀, 부모, 친구, 직장 동료 등과 대화가 안 될 때 이렇게 느끼는 이들이 적지 않을 것 같다.

여성학·평화학 연구자인 정희진은 그런 사람들에게 말한다. "소통이란 원래 힘든 일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소통의 실패를 나의 성격이나 태도 문제로 돌리지 말자."

'소통 불가능성의 인문학'이라는 부제를 단 '당신과 내가 대화할 수 있을까'는 완벽한 소통에 대한 지나친 기대와 욕망, 환상을 걷어내자고 제안한다. 서로 다른 몸과 위치, 파편화된 언어와 기억, 층층이 쌓인 이해관계와 권력을 가진 인간들이 모든 수준에서 서로를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판타지에 가깝다면서다.

그래서 소통을 잘하는 법이 아니라 때로는 설득을 포기하고 침묵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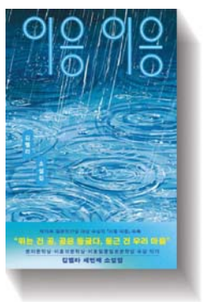
**'서로를 온전한 이해' 판타지**
**나를 잃지 않는 보호막 필요**
**표현의 자유보다 책임 중요**

수 있는 힘을 기르자고 했다. 모든 사람과 이야기하려 하지 않기, 상대를 설득하려고 하지 않기, 나에게 의미 있는 관계와 장면을 선택하고 그 안에서 최소한으로 말하기처럼 말이다. "저 사람은 도대체 왜 저럴까?"라는 질문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쏟지 말고 이해 불가능성을 그대로 인정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 나를 잃어버리지 않는 단단한 보호막이 될 수 있다고 했다.

공적 대화의 차원에서 한국 사회의 첨예한 이슈도 들여다봤다. 저자는 혐오 발언을 일삼는 사람들이 언제나 표현의 자유를 외치지만 오늘날 그것이 역전된 방식으로 쓰이고 있다고 짚었다. 약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장치로 등장한 개념인 '표현의 자유'가 '하고 싶은 말은 뭐든지 할 수 있다'는 허가증이 아니라고 했다. 그 본뜻을 이해한다면 사회적 강자가 약자를 향해 내뱉는 폭력적인 말을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없다고 밝힌 그는 "근본적으로 '표현의 자유'보다 '표현의 책임'이 다 강조되는 사회가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인다.

"민주주의는 언어의 도단을 함께 고민하는 것"이라는 대목도 있다. 여기서 언어도단은 피해자가 "어디서부터 어떻게 말을 시작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언어의 파산을 겪는 사례와 같이 '말이 끊겨버린 자리'를 뜻한다. 저자는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누군가의 성급한 결론이나 매끄러운 위로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그 지독한 '말 없음'의 상태 자체를 회피하지 않고 함께 견뎌내는 시간입니다. 민주주의란 바로 그 고통스러운 침묵의 시간을 가능하게 만드는 제도와 문화의 다른 이름이어야 합니다."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 내 마음 옴팡진 곳의 기억들
## 생명으로 순환하는 "메께라"



### 소설집 '이응 이응'

김멜라 지음

문학과지성사

제15회 젊은작가상 대상을 받은 김멜라의 세 번째 소설집. 대상 수상작을 표제로 올렸다.

수록작은 '지하철은 왜 샛별인가' '좀비 손금' '젖은 눈과 무적의 배꼽' '드그다 읏따읏따' '아무래짜' '이응 이응' '물먹은 편지' '메께라 께라' 등 8편이다. 2022년부터 최근까지 발표했던 작품들로 작가가 새로이 펼치는 문학적 상상력의 지평을 확인할 수 있다. 성적 쾌감을 주는 기계인 '이응'이 전국적으로 상용화된 근미래를 그린 표제작에서 삶과 죽음, 욕망과 사랑, 인간과 기계를 구분하는 시선에 질문을 제기하는 등 그의 소설은 경계를 지우며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간다.

제주 독자들은 '메께라 께라'에 한 번 더 눈길이 갈 듯하다. 앞서 발간한 에세이('멜라지는 마음')에서 필명 '멜라'가 제주 방언인 '멜라지다'에서 왔다고 고백했던 작가다. 소설집 맨 끝에 실린 '메께라 께라'는 제목에서 짐작하듯 제주가 배경으로 등장하는 단편이다.

이 소설은 오름 위 옴팡진 곳에서 시작하는 이야기 속에 마법 같은 "메께라"의 어감이 다층적으로 다가온다. "웅덩이에 빗물이 고이듯 내 마음 옴팡진 곳"에 남아 있는 제주의 기억. 거기엔 까만 돌을 쌓아 만든 '물애기' 무덤이 있다. 키우던 고양이가 죽은 상실을 경험한 주인공 '소낭'은 '꼬리따기' 노래처럼 이어지는 생명의 법칙을 배운다. 진선희기자

## 새로 나온 책

▶햇살이 술이었던가 바람이 춤이었던가(강영임 시집)=유휴열 작가의 조형물에서 따온 '추어나 푸돗던고 2-당신에게'의 시구를 표제로 삼았다. "밑동 흔든 바람도/출렁이던 고비도/ 오래 만지다 보면 결 고운 무늬가 돼"('빛나는 것들은 모두 별')라는 구절이 적힌 첫 장을 넘기면 여린 존재들에 시선이 머무는 시편들이 펼쳐진다. "살아내려 애쓴 날들"의 사연이 거기에 있다. 도서출판 상상인.

▶야생화와 혁명가 사이(고주희 시집)="봄은 왜 끝나지 않는 불면인지"를 묻고 있다. "저는 뒤척이는 오름과 바다를 오가는/ 당신의 뒷모습을 오래도록 받아 적습니다"('새빌오름')라는 시의 화자처럼 시인은 그날과 그 이후의 시간들을 껴안는다. "매일 밤, 얼굴을 감싸 쥐었을 그 여자"가 살았던 제주 땅에서 출발해 섬 바깥으로 시선을 넓혀 "차마 입을 뗄 수 없는 이야기"와 마주한다. 걷는사람.

▶섬에선 모든 길들이 바다의 목줄이다(이애자 시집)=돌담에서 '제주 사람'을 본다. "부러, 바람 앞에 틈을 내준 밭담들 보라/ / 어글락 다글락 불안한 열 맞춤에도// 쉽사리 허물어지지 않는 엇각을 지니고 있다"고 노래한다. 제주 바다, 풀꽃, 오름이 있는 풍경 속에 섬 사람들의 지난한 삶이 흐른다. 잼을 만들거나 깨를 볶는 등 일상에서 발견한 시들엔 "사는 맛"이 있다. 한그루.

▶아버지의 나무(이철수 시집)="현재 아버지를 모시고 병원에 다니고 있으며 과수원을 벗 삼아 시를 쓰고 있다"는 시인이다. "아름다운 꽃 달콤한 열매"와 같은 아버지의 내리사랑을 그려낸 시편들 속에 시 속 화자는 "추위쯤 껴안고 품을 수 있지만/ 아버지 피가 얼지 않게/ 아버지 심장이 식지 않게/ 따뜻한 봄이 기다려진다"('봄을 기다리는 이유')고 했다. 황금알.

▶다시, 봄을 꿈꾸며(김경택 시집)='봄' '여름' '가을' '겨울' '다시, 봄' 장으로 나눠 시를 묶었다. 누군가를 기억하는 봄날의 '편지'를 시작으로 사계절을 지나 다시 봄을 맞았지만 그대가 오지 않았기에 그 봄은 봄이 아니다. "생이 뜨거우면 가시도 무성하다고/ 우리는 절망 속에서도 살아가야 하는 것/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별보다 아픈 하루"('늦은 밤, 거리에서')를 건너며 다시 봄을 기다린다. 한그루.